

한국농어촌공사·IGC 2024 조직위원회,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내 지질 분야의 우수성 입증 및 국제 교류의 장 마련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IGC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정대교)는 20일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24년 세계지질과학총회(IGC)’는 지질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행사로 1878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하여 4년 주기로 전 세계 대륙을 순환하여 개최한다.

특히, 이번 제37차 IGC는 대한민국 최초 개최 및 1996년 IGC 중국총회 개최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28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양사는 원활한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 지질 분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협력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는 필드트립 코스 연계 방문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학술발표와 전시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지질 분야의 공사의 전문기술 홍보하는 등 성공적인 IGC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의 조직력과 전문기술력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면 더욱 내실 있는 국제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양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2024 부산 IGC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우리나라 지질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환경지질처	책임자	부 장
	물순환지하수부	담당자	차 장
			박영규 (061-338-5791)
			차 장 백진희 (061-338-5792)

참 고

제37차 부산 세계지질과학 총회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The 37th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 (기 간) 2024. 8. 25.(일) ~ 8. 31.(토), 7일간(4년마다 대륙순환 개최)
- (장소/규모) 부산 BEXCO / 121개국 1만여 명(학술발표 세션 300여 개, 전시 250부스)
- (주 제) The Great Travelers: Voyages to the Unifying Earth
- (주 최) 국제지질과학연맹(IUGS)
- (주 관) IGC 2024 조직위원회(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광역시)
-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 세계지질과학총회 (IGC)

- 세계지질과학총회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이하 IG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질과학 올림픽
- 1878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하여 4년 주기로 전세계 대륙 순환 개최 (2020년, 제 36차 IGC 인도총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취소)
- 대회 전 세계 120여개국 이상, 평균 6,000여명 이상의 지질전문가와 4,000편 이상의 논문 발표, 30개 이상의 필드트립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전세계 지질학을 통합하는 학계 축제의 장
- 주요 프로그램은 총회, 전시회(GeoExpo), 워크숍, 야외 지질답사 등

※ IGC 2024 개최 의의(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 1996년 IGC 중국총회 개최 이후 동아시아 지역 28년 만에 개최
- 동아시아 지질과학분야의 신흥 강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
- 제36차 IGC 인도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취소됨에 따라 높은 참석률과 전 세계 많은 지질과학계 전문가들의 참여 기대